현장시선

안전한 제주관광 이미지를 되찾아야

김 영 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본격적인 휴가철에 돌입했다. 관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행객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언론에 8~9일 보도된 제주 외국인 범죄 위험수위, 제주 함덕해수욕장 상어 출몰 등의 사건 등은 제주의 안전 관광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임을 가리키고 있다.

오래된 사회과학이론 중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상위단계로 올라갈수록 인간의 개별적인 욕구를 지향하고 낮을수록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욕구이다. 안전에 대한 욕구는 생리적 욕구인 1단계의 다음인 2단계이다. 그만큼 사회적으로나 관광측면으로나 기본적으로 확보돼야 할 욕구라고 하겠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안전한 제주관광의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다. 더구나 관광시장의 호재인 여름휴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관광에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신경을 쓰는 부분은 안전에 관한 것이다. 관광지에서의 안전은 관광지 이미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관련 기관들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의미한다. 관광객들의 불안 심리를 다소 해소시키기 위하여 제주에서도 국내여행의 안전성에 관한 홍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의 관광 위험지각은 상황으로부터 지각까지에 대한 대처에 따라 관광객이 목적지를 방문할 것인지 이탈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한다. 지금시점에서 관광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이다.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의 시간과 사회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세한 여행일정 안내와 현지에서의 기본예절이나 사회풍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관광지의 관광객관리를 위해 관광지의 날씨 및 음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치안과 교통 안내가 필요하다. 최근 개별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위험지각의 수준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높은 관광비용에 대해서는 제주도관광협회와 제주도의 해결방안 모색과 자치경찰의 안전활동 전개 등 다양한 안전제주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각자의 역할에 대한 충실한 이행으로 관광인식을 변화시켜 안전한 제주관광의 지위를 되찾아야만 한다.

앞으로 우리 제주도관광협회는 안전한 제주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소와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한 제주를 알리는 포스터를 게시하고, 해양관광객과 올레길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전제주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는 여름철 식중독 대비 안전한 음식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광객의 안전은 관광도시와 한 나라의 관광발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광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다. 휴가철 제주관광지가 안전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때이다. 안전한 제주관광지에서 올해 휴가를 계획하고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제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떠날 수 있도록 제주도민들의 안전한 환대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진다.

열린마당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송 지 선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자치팀

도장은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새겨 찍는 도구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 하나쯤 가지고 있을 것이다.

도장 중 특별히 행정청에 사전신고하여 등록한 도장을 '인감'이라고 부른다. 행정청이 신고한 본인의 인감임 증명해 주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자동차 매도 등 각종 거래, 계약, 대출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은 인감제도로 인해 불편을 겪는 민원인을 만나게 된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인감이다보니 어떤 도장이 인감인지 모르거나, 인감을 분실하여 변경해야 하거나, 간혹 인감 신고한 적이 없는 것을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안내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실정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제도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동일하지만, 사전에 서명을 등록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명하고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는 실물 도장을 제작,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용도와 위임받는 사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므로,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부정발급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도입 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수요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거래 관계에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함께 널리 알려져,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관광약자 점검으로 휠체어 신세 마무리

원지사 역지사지 입장서

○…뜻하지 않은 부상으로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상복귀(?)를 앞두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 접근성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

원 지사는 지난 5월 18일 롤러를 타다가 전치 6주의 부상으로 휠체어에 의지한채 정상업무 및 각종 행사에 얼굴을 내미는 등 부상 전과 다름없는 일정을 소화.

하지만 휠체어에서 벗어날 때가 임박하자 관광약자들의 불편함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미리 체크하는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휠체어 신세를 마무리할 전망. 조상윤기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제주시가 여름 휴가철 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일제 점검을 실시키로 해 주목.

시는 불법촬영 카메라 노출이 큰 해수욕장 화장실 및 관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탐지전문 장비를 활용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단 한건도 찾은 적이 없다"며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고대로기자

중앙고 '폭력 제로' 효과

○…제주특별법 '교육과정 운영 특례' 규정을 활용해 제주형 자율학교로 운영 중인 제주중앙고가 '폭력 제로' 효과를 만끽.

강은주 도교육청 장학사는 "제주중앙고는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4년째인 올해 폭력 제로 성과를 거뒀다"며 "최근에는 '수업 중 스마트폰 허용' 문제를 놓고 전교생이 대토론회를 진행해 '수업시간 만큼은 안 된다'는 결론도 내렸다"고 설명.

강 장학사는 "교사들도 이렇게까지 변한 모습에 서로 감동하는 상태"라고 강조. 표성준기자

사설

정부계획에 지역과제 최대한 반영해야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 담길 제주도 발전방향의 큰 그림이 나왔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은 앞으로 20년간 국토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할 법정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제시한 지역과제들이 정부계획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공청회에서 '제주도 발전방향안'이 발표됐습니다. 제주도는 발전방향안으로 '청정과 공존의 스마트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비전을 중심으로 ▷제주도민 삶의 질·안전 향상 추구 ▷분권과 균형의 특별자치도 실현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 공간 구현 ▷혁신·스마트·평화 가치가 반영된 국제자유도시 등 4가지 기본목표를 담았습니다. 또 전략목표로 ▷삶·안전 제주 ▷균형·혁신 제주 ▷청정·스마트 제주 ▷평화·분권 제주 등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과제로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건설 추진 ▷장기적으로 신교통수단 도입 ▷제주~육지부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발전방향안에 담긴 대형 프로젝트들을 보면 새로운 사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미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중인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비전으로 제시한 '스마트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할 계획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마트 도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첨단도시인데 세부과제에서도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행계획에 담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프라 구축이 수반돼야 하는 스마트 도시 조성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어서 걱정됩니다. 아무튼 제주도가 계획한 지역과제들이 국토종합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개발 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보전지역 관리조례' 부결이 주는 의미

그동안 제주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됐던 '제주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공항을 포함시키고, 등급의 변경·해제가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 지난 5월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논란 끝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처음 발의했을 때만 해도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이후 찬반 논란이 제기되면서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철회해 버렸습니다. 발의자인 홍명환 의원은 언론이 조례안을 제2공항 반대프레임과 연계하면서 제주환경을 지키고자했던 당초 취지는 희석되고 제2공항 찬반 주민 간의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엉뚱하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11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도 이 조례안은 재석의원 40명 중 19명만이 찬성표를 던져 과반수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7명의 의원은 기권으로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만큼 도의회 내부에서도, 또한 절대 다수였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당론을 정하지 못할 만큼 찬반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제주자치도의회는 이번 표결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고 제2공항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제2공항 문제를 우회적인 어깃장 조례 제정으로 풀 것이 아니라 제주도정과 의회, 지역주민이 공론의 장에서 함께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에 나서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말로 통탄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evworld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1544-82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고개숙인 남성들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20627-중-30735호
발기부전치료에 쓰이는
※원터치자동약물주입기의 장점※
▶ 사용 및 휴대가 매우 간편하고 원터치로 약물이 주입되어 통증 및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 기기에 쓰이는 치료약물은 고혈압, 당뇨, 노화에 의한 발기부전 및 암, 수술 후 발생한 발기부전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약물주입시 대부분의 남성들이 발기가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터치 자동주입기에 넣어 사용하는 발기부전치료약물은 부적절하게 사용시 발기가오래 지속되는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기부전클리닉 ▶조루약물주입법
▶전립선클리닉 ▶남성회성기질환 ▶요로결석
※ 남성고민 상담 ※
연세포르테비뇨기과원
☎ 064) 724-7575
터미널 맞은편 ☞ 제주은행 2F

의 료 안 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 장 신 동 구
중앙신협(신축) 2층 동구치과의원
제주대 제주소방서 시청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

계분 판매합니다.
(배 달 가 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 064-796-6947
핸드폰 :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 제주시 한림읍 명상로106-7)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